



<32> 청산도 슬로길

도청항~권덕리 마을회관



청산도 '슬로 길' 1코스인 청산면 도락리 마을에서 영화 '서편제' 길로 오르는 '동구정 길' 전경. 길 주변으로 코스모스가 하나 둘씩 꽃을 피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바뀌는 풍광따라 '절로 느려지는 발걸음'

구들장·다랭이 논 지나 돌담길, 해안길 거쳐 마을길

100리 11개 코스...지루할 틈 없는 '세계 슬로길 1호'

여름 끝, 가을 문턱의 바다 바람은 차가웠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 때문인지 가들이 더욱 가깝게 느껴졌다.
휴가기간이 끝나서인지 여름철 시끌벅적했던 해변은
적막했다. 그래서인지 완도항에서 떠나는 청산도행
철부선도 예전처럼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0
여 명의 관광객이 철부선에 몸을 실었다.

'슬로 시티'(Slow City)로 인기몰이를 해 온 청산도가 최근에는 '슬로(Slow) 길'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걸음이 절로 느려진다는 뜻을 가진 '슬로 길'은 현재 11개 코스(17길) 100리 (42.195km)가 만들어졌다. 주민들의 마을 간 이동으로 이용되는 길을 최근 완도군이 정비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국제슬로시티연맹 세계 슬로길 1호로 공식 인증된 길이기도 하다.

'슬로 길'에는 섬의 풍경과 정취, 사람 사는 이야기가 흡뻑 담겨 있어 걷는 재미가 쏙쏙하다.

청산도에서만 볼 수 있는 구들장 논과 다랭이 논, 돌담길, 초분(草墳·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일정 기간 짚으로 만든 가묘(假墓))에 장례 하는 장례법)은 물론 바닷가와 마을 길을 에둘러 돌기 때문에 다른 바닷길과 달리 자주하지 않다.

다만, 거리가 100리가 가까이 되다 보니 하루에 모두 걸기는 벅차다.

1박2일 정도 일정이면 청산도의 숨겨진 비경을 둘러볼 수 있다. 하지만, 11개 코스 모두 걸을 필요 없이 경치가 가장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1~5 코스를 걷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1 코스는 완도에서 출발한 배가 청산도 입구인 도청항에 닿으면 시작된다. 슬로 길에서 가장 평평이라 할 수 있는 풍경들이 넓렸다. 부둣가를 따라 도락리 마을로 들어서면 골목 곳곳 돌담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다. 옛날 이곳 학교의 졸업 사진이다. 소박하지만, 따뜻함이 물어있다. 마을 길 주변에는 누렇게 익어갈 벼들이 시꺼멓게 타 고개를 쳐박고 있다. 태풍 '우파'로 염해 피해를 입어서다.

마을 길을 가로 질러 오르막 길을 오르면 한국 영화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편제'의 촬영지다. 주인공 세 사람이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구불구불한 돌담길을 걷는 명장면이 촬영된 곳이다. 돌담길 끝에는 유럽풍의 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다. 드리마 몸의

월츠 세트장이다. 돌담길 주변으로는 코스모스가 가을을 재촉하며 하나 둘씩 얼굴을 내밀며 길손들을 반기고 있다. 봄에는 유채꽃과 청보리가 이곳에 가득 피어나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곤 한다. 돌담길에서 내려다보는 도락리 해변은 인상적이다. 층층이 쌓인 밭과 섬을 품은 너른 바다가 분홍빛 코스모스가 조화를 이루면서 장관을 이룬다. 2 코스는 당시에서 구장리를 잇는 2.1km의 짧은 길이다. 하지만, 숲의 고즈넉함과 해안 절경의 운치를 즐길 수 있다. 해안 사면길이지만, 산행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 간간이 눈에 들어오는 바다 풍경이 더욱 발길음을 가볍게 한다.

3 코스는 마을 길로 향한다. 당리마을로 들어서면 돌담 골목 안에 영화 서편제 촬영기록이 나온다. 골목은 오르막을 올라 청진산성으로 안내한다. 성곽을 따라 다시 내려가도록 길이 이어진다. 성곽에선 읍의 계단식 녹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는 구들장 논이라고 한다. 삼나무 터에 녹과 밭이 부족해 주민들이 산



영화 '서편제' 길인 당시 입구에서 바라 본 도락리 전경. 서편제 길로 오르는 길이 도락리로 길게 이어져 있다.

을 깨어 바다에 구들처럼 돌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부어 만든 논이다. 주민들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 낸 논인 셈이다. 마을 중심부에는 고인돌 공원도 있다. 그래서 3 코스는 고인돌 길로 불린다. 이 코스는 산성, 고인돌 공원 등 청산도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마을을 관통해 나오면 읍리 해변 방파제가 나온다.

이곳에서부터 4 코스 남길이 시작된다. 구정리에서 권덕리까지 이어진 낭떠러지 길이다. 해안 절벽을 따라 길이 나 있어 하늘에 떠 있는 듯, 바다에 떠 있는 듯한 느낌으로 길을 걸을 수 있다.

소나무 숲과 해안길을 동시에 걸을 수 있어 재미가 더 한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힐스테이트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여긴 어디? 낸 누구? 아랫밤을 재구성하라! 행오버2

상당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 - 7941

조조 영화관 어떤세요?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에 이벤트 팝콘 증정

상무점 **하남점**

| | |
|-----|---|
| 1관 | 블라인드 (18세)/세 얼간이 (12세) |
| 2관 | 기구정이 스트포 (전체)/드라이브인 그리 (18세) |
| 3관 | 마당을나온암탈 (전체)/혹성탈출 (15세) |
| 4관 | 혹성탈출:진화의 시작 (15세) |
| 5관 | 퀸 (15세)/별을쫓는아이 (15세) |
| 6관 | 사오린:최후의 결전 (15세) |
| 7관 | 최종병기 활 (15세) |
| 8관 | 최종병기 활 (15세) |
| 9관 | 행오버2 (18세) |
| 10관 | 돈비어프레이드 (15세)/로맨틱크라운 (12세) 리뉴얼 오픈! 8월 8일부터 500만원 상당의 경품! |

달라진 풀콤霸王장을 소개다면 풍행한 경향이 광범

구. 런던 악극거리 ☎ 1544 - 0600

MEGABOX

| | |
|-----|------------------------------|
| 1관 | 최종병기 활 (15세) |
| 2관 | 최종병기 활 (15세) |
| 3관 | 혹성탈출:진화의 시작 (15세) |
| 4관 | 명탐정 코난:침묵의 15분 (전체) |
| 5관 | 세 얼간이 (12세)/내여자친구의 결혼식 (18세) |
| 6관 | 혹성탈출 (15세)/행오버2 (18세) |
| 7관 | 사오린:최후의 결전 (15세) |
| 8관 | 돈비어프레이드 (15세)/별을쫓는아이 (15세) |
| 9관 | 마당을나온암탈 (전체)/퀸 (15세) |
| 10관 | 기구정이 스트포 (전체)/최종병기 활 (15세) |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대위, 황금주차별당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게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구. 런던 악극거리 ☎ 1544 - 0600

CINUS

| | |
|----|------------------------|
| 1관 | 행오버2 (18세) |
| 2관 | 돈비어프레이드 (15세) |
| 3관 | 혹성탈출:진화의 시작 (15세) |
| 4관 | 마당을나온암탈 (전체) |
| 5관 | 내여자친구의 결혼식 (18세) |
| 6관 | 로맨틱크라운 (12세)/원라이프 (전체) |
| 7관 | 세 얼간이 (12세) |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